

예수를 증거하는 삶

과목 소개

1.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하여 (2)

거듭남 (택하심, 양자됨)

십자가 보혈 (풀려남, 죄사함)

-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
- 인격적인 만남, 신성한 접촉 (divine encounter)
- 성령님과 거듭남에 대하여

2.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 (2)

부활의 증거

부활의 결과

- 정말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3. “진짜 믿음”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가? (1)

영혼전도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나?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

-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관계를 만든다
- 관계적인 믿음과 광신, 맹신

4.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존엄성, 창세기 (2)

- 영혼 육/죄
- 안정감 (security), 중요감 (significance)

5. 복음은 왜 복음인가? (1)

- 내가 전도할 때 왜 사람들은 귀를 닫는가?
- 어떻게 전도하는 것인가?

6. 복음과 제자도, 로드십과 전도 (2)-부르심, 의로움(의에 대하여...), 성화됨

- 아들의 영성과 종의 영성
- 성숙한 아들과 제자

7.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 신부의 영성 (2) -영광됨

- 왜 이 시대가 중요한가?
- 영토 확장

십자가 보혈 I (풀려남, 죄사함)

누가4:16-22

16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17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사 61:1; 2)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22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Quest1)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이유, 사역의 내용은 뭔가? 어떻게 그런 자격을 받았는가?

마태26:26-29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28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Quest2)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피의 제사를 지내나?

Quest3)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누가12:4-9

4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 주겠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7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Quest4) 나는 걱정 두려움이 없이 맘 편하게 살고 있는가? 궁극적인 두려움의 근본은 무엇인가?

속죄의 피, 보혈-대가를 치른 피, 용서의 피

언약의 피- 약속으로 되어 있는 피

능력 과 권세의 피: 노예해방 증서, 온몸에 그분의 피를 두르고 산다는 사실. 어떤 악한 것

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구약예언,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3:8)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
대중에 누가 생각 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 53:11)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요한18:19-40

19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20 예수께서 대답하셨
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21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22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제 무
슨 대답이나?"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23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
하여 나를 때리시오?" 24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25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26 베드로에게 귀를 잘
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
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27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답이 올었다.

[마가14:53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
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
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55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56 예수에게 불
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57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58 "우리가 이 사람이 말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60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6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6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
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63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
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65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

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 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28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29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30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31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2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3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35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3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37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들소." 38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39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40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Quest5)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종교재판이었다. 왜 총독관저로 옮겨져 재판을 다시 받는가?

Quest6) 예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가 말한 진리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죄는 무엇이며 이방인의 죄는 무엇인가?